

그대와 만든 차 한잔으로 비엔날레 시동

공연장으로 밀려든 제주바다가 살렸다

구민자 작가 티퍼포먼스 사전행사로 관객과 만남

하이얀 천 위 햇볕에 몸을 말린 색색의 식재료들이 그림처럼 놓였다. 따뜻한 차(茶)로 다시 태어날 그들이었다. 200개 가까운 그것들 중엔 제주도의 밭과 바다에서 건져올린 재료도 보였다. 양파, 당근, 양배추, 감귤, 다시마, 톳, 미역 등이 올라왔다.



구민자 작가가 제주에서 난 식재료 등을 골라 찻주전자에 담고 있다.

전선희기자

당은 제주신화를 다룬 21일 발표와 토론에 이은 두번째 사전 행사로 차를 마시며 제주도민들과 비엔날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티 퍼포먼스'는 있었지만 '토크'는 없었다. 신당 기행 등이 예정되었던 참여 작가, 주최 측인 도립미술관 직원 등 행사 관계자들이 다수였다. 그래서 김민선 예술감독이 비엔날레에 대한 관객 대화를 시도했으나 메아리가 없었다.

격년제 국제전시임에도 3년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비엔날레이지만 그만큼 준비 기간을 번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주 도

립미술관장은 비엔날레를 전담해온 학예사가 최근 공석이 된 점 등을 알리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020제주비엔날레 사전준비 영역 업체는 회계연도 때문에 연말로 계약이 끝난다. 도립미술관은 조만간 공모 절차를 밟아 내년에 활동할 영역업체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예술감독 역시 새로운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2020제주비엔날레 홈페이지(jeubiennale.org)마저 접근성이 낮다. 대형 포털에서 제주비엔날레를 검색하면 2017년 비엔날레 홈페이지가 안내된다.

전선희기자

도립무용단 '이여도사나' 오케스트라 피트 물 채워 생명 치유의 메시지 나눠 라이브 음악도 극적 효과

막이 열리자 제주 밤바다 집어들처럼 라이브 연주단 보편대 불빛이 반짝거렸다. 그 작은 불빛이 2060년에 살고 있는 인류의 이마에 달린 등이 된 듯 하며 공연이 시작됐다. 지난 22일 저녁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립무용단 기획공연 '이여도사나'가 통제사회인 불라국을 배경으로 1시간 여 숨가쁘게 달렸다.

김혜림 상임안무자가 안무하고 경민선 작가가 대본을 쓴 '이여도사나'는 제주에 민요 등으로 전승되는 전설의 섬 이여도, 제주 무속신화에서 생불함양이나 불도함양으로 불리며 인간 세상에 아기를 잉태하고 돌보는 일을 맡는 삼승함양, 심수 미터 깊은 물속까지 헤엄쳐 들어가 해산물을 캐내 가족을 먹여살려온 제주 해녀를 '버무려' 낸 작품이었다. 삼승함양과

해녀를 결합한 '삼승해녀'를 주인공으로 이여도와 같은 새로운 '섬'을 꿈꾸는 인류의 모습을 그렸다.

관객을 사로잡은 건 공연장 안까지 밀려든 '제주 바다'였다. 제주의 토속적 정서를 붙잡은 음악을 생생히 펼쳐낸 잠비나이 밴드를 무대 뒷편 상단에 앉힌 대신 객석과 가까운 오케스트라 피트 자리에 물을 채워올렸다. 물은 생명수이면서 제주섬의 존재를 일깨우는 바다가 되어 출렁였다. 그 바다는 수 백, 수 천년의 세월을 따라 흘러온 과거 신화와 이여도 전설이 수십년 뒤 어느 날과 어색하지 않게 만나도록 이끌며 치유의 메시지를 드러냈다.

미래 '불라국'의 설정은 전통 문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춤 동작, 의상, 이미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용단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화려한 무대를 빛으며 불거리를 안겼다. 하지만 일부 장면에서 좌우를 바꾼 공연 모습을 동시에 벽면에 비추는 대목은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새날을 예고하는 등불로, 새 생명으로 상징된 태극의 빛깔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이여도사나' 공연 안내 자료에 실린 이미지.

도내 한 무용인은 삼승함양과 해녀의 조합, 라이브 음악, 테크닉 등 새로운 시도를 호평했다. 다만 주역인 삼승을 젊은 신으로 설정한 점은 좋았으나 시중 육감적으로 표현되면서 더러 극의 몰입을 방해했다는 감상평을 전했다. 집 모양 오브제를 난개발과 연계해 안무했다면 지금 제주를 돌아볼 수 있는 무대로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바람도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11월 25일~12월 1일) 무대 & 미술

집시의 멜로디, 스페인의 열정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 7개의 노래' 등 선사

29년째 '성악의 길'을 걷고 있는 제주 소프라노 오능희(사진). 그가 오페라 아리아, 예술가곡 등으로 독창회를 연다.



재학생과 예비 입학생들이 11월 25~12월 1일 제주 아르신을 찾아가는 공연을 벌인다. 010-9301-8118.

▶소프라노 유소영과 함께하는 삶과 노래 II=11월 26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7744-6702.

▶연극 '세 여자'=11월 26-27일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콘서트=11월 27일 오후 6시 국립제주박물관. 720-8035.

▶선재합창단 꿈과 행복나눔악회 '동행' 세 번째 이야기=11월 27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7490-1203.

▶제주중앙고 개교 66주년 중앙음악제=11월 28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8661-6833.

▶서귀포 시민을 위한 제주나눔오케스트라 힐링 연주회=11월 28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8976-3653.

▶버스킹문화연구회 소리모아 마음모아 작은음악회=11월 29일 오후 7시 해변공연장 소극장. 020-2825-7381.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11월 29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76.

▶애월합창단 정기연주회=11월 2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3691-1485.

▶과학미술체험과 풍선 퍼포먼스 공연=11월 29-30일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766-0710.

▶하모니&드림 합창페스티벌=11월 30일 오후 3시 아라뮤즈홀. 754-4697.

▶강문철 창작가곡 발표회=11월 30일 오후 4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3699-8806.

▶소리바라기 정기공연=11월 30일

오후 5시 문예회관. 010-9757-4424.

▶이미지 음악극 '애기바람'=11월 30일 오후 5시와 7시30분 김정문화회관. 760-3579.

▶제주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모니앙상블 정기연주회=11월 30일 오후 6시 문예회관. 010-9079-5676.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11월 30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다문화합창단, 소프라노 현선경, 바리톤 서동희, 서귀포소년소녀합창단 출연. 760-3350.

▶제주도성악협회 가곡의 밤=11월 30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010-2309-6255.

▶극단 이여도의 '몽골 익스프레스'=11월 30일 오후 7시, 12월 1일 오후 3시 미에랑소극장. 755-0904.

▶한라산협과 함께하는 어부바콘서트=12월 1일 오후 2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색소폰앙상블, 서경석 출연. 757-7171.

▶화음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2월 1일 오후 7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4602-56763.

▶제주YMCA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2월 1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2949-1175.

<전시>
▶그룹 연 정기전 '연-달아'=11월 25-12월 14일 갤러리카페 다리. 726-2662.

▶현인갤러리 서경희 초대전 '바다 이야기'=11월 26-12월 7일. 747-1500.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11월 26-12월 29일 제주도립김장영미술관 다목적 공간. 010-6866-6841.

▶낮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11월 26-2020년 3월 1일 국립제주박물관. 720-8000.

▶김선영 서예전=11월 28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장은철 작가 문하생 모임 '한국수묵연구회' 전=11월 28일까지 문예회관. 11월 30-12월 30일 갤러리카페 지오. 724-5201.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재미진 학교 3기전=11월 28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010-3583-0466.

▶기담미술관 신소장품전=11월 29~2020년 2월 23일. 733-1586.

▶신창범 사진전 '세멘트'=11월 29일까지 북촌돌하르방공원. 782-0570.

▶김지열 개인전 '시간을 담다'=11월 30일까지 거인의정원. 702-3237.

▶담화현스튜디오 레지던시 결과보고전=11월 30일까지. 010-3694-3662.

▶페티야 캠벨 도자기전=11월 30일까지 스페이스나르. 772-4280.

▶스튜디오 비전의 시간=11월 30-12월 1일 프로젝트 공간 SSSS. 010-2733-0022.

▶제주기록사건가협회전=11월 30-12월 5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상록사친학회전=11월 30-12월 5일 문예회관. 710-7633.

▶금봉 박행보 -강산을 훑쳐보고 시를 건지다=12월 1일까지 소망기념관. 760-3511.

▶환경사랑서예전=북연회 주관 12월 1일까지 조천읍도서관. 728-1505.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전=12월 3일까지 예술공간 아아. 800-9330. 전선희기자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